

對필리핀 원조동향과 KOICA의 협력방향

최 성 호 / 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사무소장

I. 머리말

필리핀은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장 아시아적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다. 전국민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이며 약 50여 개의 다양한 인종과 지역별로 파갈로그, 일로까노, 세부아노 등 지방언어가 산재에 있음에도 영어가 자유롭게 널리 통용되는 국가이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 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상·하원의 의회제도를 갖춘,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봉건적 잔재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필리핀이 이러한 국가적 특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521년 마젤란이 사마르 섬에 상륙한 이후, 1571년 국가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 지

역을 정복한 당시 스페인 국왕 필립(Philip)에서 유래된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1898)를 거쳐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 강화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2천만 불의 대가를 받고 미국에 이양함으로써 미국 식민지 시대(1898~1946)를 겪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필리핀은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 및 산업기반, 극심한 빈부격차, 만연된 정부 부패 및 무능, 높은 인구증가율과 실업률 등 국내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로요 대통령 집권 이후 최근 필리핀 정부의 국가개발목표 및 전략을 정리해 보고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동향과 특징을 살펴본 후, 끝으로 KOICA의 대 필리핀 협력 현황과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필리핀 국가개발정책 현황

1. 국내 경제구조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발전속도가 늦은 편으로 사회인프라 및 산업기반이 미비하고 전국의 15대 명문 가족이 국부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270불 이하 극빈층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농업국가로서 노동력의 38%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나, GDP 중 농업의 비중은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농업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토지개혁의 실패로 토지무소유 소작인이 많은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밖에 카톨릭 국가로서 연 2.3%에 달하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실업률, 정부의 부패와 세수부진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 등도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필리핀은 탈세, 조세행정 낙후로 인한 세수확보 실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외채누적 등으로 재정적자가 한계에 달한 상태로 외채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매년 새로이 외채를 얻어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2003년 외채이자 상환 비중은 재정지출의 27%, 2004년은 33%, 2005년에는 36%에 달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현재 75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 해외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가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최근의 ADB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73억불로 발표되었으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송금액을 합치면 사실상 1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는 필리핀이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2004년 말 현재 외채는 556억불로써 GDP의 64%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외환보유고가 161억 불이며 중장기채가 89%를 차지함으로써 당분간 외환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필리핀 정부의 국가개발정책

2001년 1월 출범한 현 아로요 정부는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을 개발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 대통령 취임시 발표한 국가개발 10대 국정과제(10-point agenda)는 ①중소기업 용자확대 및 농지개량을 통한 1,000만 개 일자리창출 ②교육 투자 확대 ③세수증대 및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균형 예산 달성 ④도서간 선박연계망 및 IT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방분권화 달성 ⑤벽지에 대한 전력 및 수도공급 ⑥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의 균형발전을 통한 마닐라 인구집중 해소 ⑦수빅, 클라크 등의 경제특구 육성을 통한 아시아 중심 물류센터 구축 ⑧선거개표 전산화 ⑨이슬람반군과의 평화협상의 성공적 종식 ⑩국민대화합 등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은 2010년까지 1,000만개의 직업창출, 재정적자 해소와 절대빈곤층을 17%로 감소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2010년 중기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GDP성장률이 연평균 7%대에 이를 것이며 수출은 2004년 431억불에서 2010년 843억불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중기개발계획 주요경제지표(2004-2010)〉

지표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성장률(%)	5.9-6.1	5.3-6.3	6.3-7.3	6.5-7.5	6.8-7.8	7.0-8.0	7.0-8.0
수출(10억불)	43.1	47.4	52.3	58.2	65.4	74.3	84.3
GDP대비 투자비중(%)	20.1	20.3	21.4	22.5	24.1	25.8	27.7
물가상승률(%)	4.0-5.0	4.0-5.0	4.0-5.0	3.0-4.0	3.0-4.0	3.0-4.0	3.0-4.0
GDP대비 재정적자(%)	△4.2	△3.6	△2.9	△2.0	△1.1	△0.2	0.0
고용창출(천 명)	1,004-1,028	1,090-1,177	1,271-1,320	1,350-1,416	1,436-1,568	1,651-1,711	1,725-1,790
극빈가구(%)	25.69	24.35	22.93	21.61	20.31	19.04	17.88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2004년도 목표 35억불 적자에서 2010년까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빈곤가구수는 현재의 27%에서 20%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Ⅲ. 선진공여국의 대 필리핀 원조동향

1. 필리핀의 수원현황

필리핀은 개발원조에 대한 수원 행정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수원업무는 경제개발청(NEDA)이 담당하고 있으며 NEDA 내의 부서별 담당

기관이 세분화되어 공공투자국(PIS)은 우리의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차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학특별위원회(SCS)는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업무를, 그리고 필리핀봉사활동조정국(PNVSCA)은 각국의 봉사단파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재정적자로 인해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재원이 국내 인프라 분야 투자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4년도 기준 총 6억불의 ODA중 77%가 동 분야에 지원되었으며 농업 및 자원부문, 사회개혁부문, 제도구축부문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분야별 ODA 자원(2001-2004)〉

(단위: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농업, 자원	308.99	126.77	97.15	59.97
정부, 제도	164.18	41.71	141.54	18.96
인프라	902.72	662.28	90.24	468.12
사회개혁	46.74	318.55	113.69	58.13
산업, 서비스	247.29	2.98	2.02	-
계	1,670.36	1,152.28	444.64	6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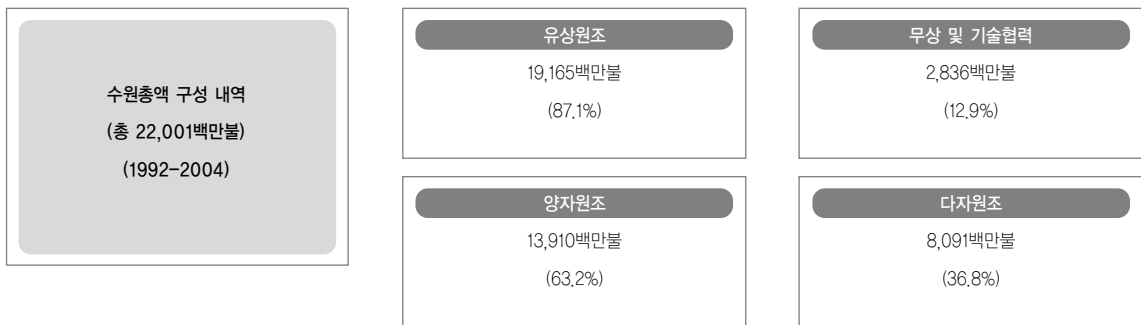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필리핀이 지난 1992~2004년간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수원총액은 총 220억불로써 연평균 17억 불을 공여받았다. 이 가운데 차관형태의 유상원조(loan)가 87%, 무상 및 기술협력(grant/TA)이 13%를 각각 차지하였다. 유상원조는 국제기구 중에는 ADB 및 IBRD 차관이 대부분이고 공여국 중에는 일본이 양자간 유상원조의 8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상 및 기술협력은 다자형태로는 EU, UN산하기관, ADB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양자형태로는 일본, 미국, 호주 순으로 많은 공여를 받았다.

동 기간 동안 유·무상을 합친 총 수원액 중 양자원조(Bilateral) 비중은 63%, 다자원조(Multi-lateral)는 37%를 각각 차지하였다. 특기할만한 사

〈필리핀 수원총액(1992~2004): 22,001백만불〉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1992~2004)〉

순 위	원조국/국제기구	금액 (비중)
1위	일본	10,286백만불(46.8%)
2위	IBRD/WB	3,909백만불(17.8%)
3위	ADB	3,622백만불(16.5%)
4위	미국	782백만불(3.6%)
5위	호주	496백만불(2.3%)
6위	독일	482백만불(2.2%)
7위	중국	462백만불(2.1%)
8위	영국	306백만불(1.4%)
9위	EU/EC	296백만불(1.3%)
10위	프랑스	289백만불(1.3%)
11위	스페인	276백만불(1.2%)
12위	UN	182백만불(0.8%)
13위	캐나다	146백만불(0.7%)
14위	오스트리아	104백만불(0.5%)
15위	한국	89백만불(0.4%)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최근 4개년간(2001-2004) 수원규모 추이〉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무상	156(9.3%)	137(11.5%)	130(29.2%)	139(18.1%)
유상	1,514(90.7%)	1,050(88.5%)	315(70.8%)	630(81.9%)
계	1,670(100%)	1,187(100%)	445(100%)	769(100%)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향은 지난 13년간 필리핀에 대한 양자간 원조총액 139억 불 중 74%에 해당하는 102억불이 일본에 의해 공여된 사실이다. 또한 2004년 중국이 4억불 규모의 차관공여를 약속함으로써 원조공여 순위 7위에 오른 점이다. 그밖에 필리핀에 대한 주요 공여국으로는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8,900만불을 공여, 총 수원액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2.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원조동향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대 필리핀 원조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3년간 102억불을 공여함으로써 필리핀 수원 총액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여액의 90% 정도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한 차관공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점 지원분야로는 ①경제 인프라 구축 ②산업 및 농업분야 구조조정 지원 ③빈곤완화 및 기본 생활환경 개선 ④환경보전 농촌개발, 재난예방 등이며 최근에는 민다나오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2년 아로요 대통령 방일시 향후 5년간 29억불의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이중 민다나오 개발에 6억 4,500만불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40억불 이상의 원조를 공여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는 일본 다음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①경제발전: 민다나오지역의 경제성장 가속화 및 소득 균등배분, 무역 및 투자증진에 필요한 환경개선 ②환경보전: 산림 및 해양자원 관리 및 보호, 온실가스 방출 억제 ③인구보건: 가족계획 보급, 어린이 보건 및 영양개선, 에이즈예방 ④민주화: 권한 및 재원의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로의 이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테러근절 및 지역개발 등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총지원액의 40% 이상이 민다나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주는 지난 13년간 4억 9,600만불을 공여하여 일본, 미국 다음의 공여국이며 중점지원분야는 교육 기회 및 질 향상, 효율적인 정부행정 증진,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초 의료혜택 증진,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그밖에 캐나다는 동 기간동안 1억 4,600만불을 공여하였으며 이중 약 70%는 양자간 지원형식으로 20%는 다자간 지원형식으로 나머지 10%는 NGO, NGI 및 민간부문 등을 통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었다. 중점지원분야로는 ①Governance 증진(공공부문 운영관리 개선; 경제 사회 정책 및 제도, 분권화 등) ②필리핀의 민간부문

〈2004년도 수원내역(잠정)〉

순 위	원조국/국제기구	2004년도 금액(비중)
1위	중국	400백만불(52.0%)
2위	호주	119백만불(15.5%)
3위	IBRD/WB	65백만불(8.5%)
4위	일본	54백만불(7.0%)
5위	한국	50백만불(6.6%)
6위	이탈리아	27백만불(3.6%)
7위	미국	20백만불(2.6%)

※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능력구축(민간부문 개발환경 개선; 취업환경 개선, 임금 개선 등) ③BHN, 여성개발, 환경분야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로는 세계은행과 마닐라에 본부가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차관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2001년 말 기준 차관사업은 29개 프로젝트에 10억 6,600만불이며 무상지원은 47개 사업에 5,700만불 상당을 지원하였다. 중점지원분야로는 경제회복 및 안정, 인적자원 개발, 환경 친화적 농촌지역 개발, 도시화 가속지역 주민생활의 질 개선, 민간기업 성장 촉진,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공행정 개선 등이다.

그밖에 EU도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오지의 빈곤 농촌마을의 생활수준 향상(농업생산 및 판매 인프라개선, 소득창출 기회 제공, 소규모 용자제도, 보건의료혜택 증진), 보건, 농지개혁, 환경, 재난구호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리핀 EU 대표부는 2007~2013년도 국별전략보고서(CSP)를 통해 향후 4년(2007~2010)간 필리핀의 빈곤완화 및 천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하도록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중점

지원 부문으로 그밖에 소규모 프로젝트, 민다나오 신탁기금(MDTF), 무역 및 개발 연계부문을 기타 지원부문으로 하여 총 90백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 필리핀 주재 외국봉사단 활동현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경제개발청(NEDA) 산하에 봉사활동조정국(PNVSCA)을 두어 각국의 봉사단파견 업무를 조정, 승인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동 조정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 파견기관은 한국해외봉사단(KOV)을 포함, 총 9개 기관이다. 국별로는 호주가 AVI, AYAD 등 2개 기관, 일본은 JOCV와 OISCA, 독일의 DED, 영국의 VSO, 미국의 평화봉사단(USPC), 그리고 UNV 등에서 총 340여 명이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단원들은 대체로 필리핀 전역에서 활동중이나, 최근의 폭탄테러 등 치안 악화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루손 지역과 비사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교권이 많은 민다나오지역은 파견을 중단, 또는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주재 외국봉사단 파견 현황〉

파견기관명	봉사단 파견체제 및 활동규모		
	파견회수	단원임기	활동인원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AVI)	비정기적	1~2년	1명
Australian Youth Ambassadors for Development(AYAD)	연간 2회	3개월~1년	7명
German Development Service(DED)	비정기적	1~6년	32명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JOCV)	연간 3회	1~3년	54명
Org. for Industrial, Spiritual & Cultural Advancement(OISCA)	비정기적	2~6년	1명
Voluntary Service Overseas(VSO)	연간 3회	1~6년	36명
United States Peace Corps(USPC)	연간 2회	2~3년	119명
United Nations Volunteers(UNV)	비정기적	6개월~6년	30명

※ 자료 : 필리핀 봉사활동조정국(PNVSCA)

IV. KOICA의 대 필리핀 협력사업 평가

1. 대 필리핀 지원실적(1991~2004)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2004년 말까지 필리핀에 2,397만불(잠정치)을 공여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연수생초청은 1,057명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연간 100명 이상씩 초청하고 있으며 필리핀 경제개발정책 과정을 국별과정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가는 총 17명, 봉사단은 137명이 각각 파견되었다. 개발조사는 지질조사, 광물탐사 등 6건(188만불)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복합화력발전소 전

환 타당성조사('93~'94년)는 이를 토대로 한국전력이 필리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개발조사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물자지원은 95만불이 공여되었고 현재는 필리핀은 단순 물자공여를 지양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총 5건에 1,123만불이 지원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카비테 지역의 한-필 친선병원(380만불)과 다바오시 한-필 직업훈련원(500만불)을 들 수 있고, 한-필 IT훈련원(500만불)은 현재 건축 중에 있다. NGO 지원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 총 5개 단체에 57만불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지원추이〉

구 분	1991-93	1994-96	1997-99	2000-02	2003-04
합계 (천불)	2,080	2,524	1,704	7,073	10,589

〈KOICA 지원실적 세부내역(1991-2004)〉

사업명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1,057명	공무원행정발전계획, 관세기법,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경영 등
전문가파견	17명	공공행정, 수산양식, 광물자원탐사, 식품공학, 해양오염, 잠업 등
봉사단파견	137명	컴퓨터, 작물생산, 용접, 지역개발, 간호, 축산, 한국어, 원예 등
개발조사	6건	1. 동부 비사야스 공단 조성 개발조사('93-'94/300천불) 2. 파나온섬 지질조사사업('92-'93/136천불) 3.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타당성조사('93-'94/374천불) 4. 수리가오 해저광물 탐사사업('97-'00/219천불) 5. 배전계통 개선 사전조사('02-'03/810천불) 6. 아세안 6국 일본뇌염예방 백신 연구사업('02-'06/2,500천불)
물자지원	5건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차량 등 총 95만불
긴급원조		화산폭발, 태풍, 산사태피해구호금 총 22만불
프로젝트		1. 잠업개발사업('95-'96/500천불) 2. 세부시 공항도로표지판 설치사업('96/120천불) 3. 한-필 직업훈련원 건립('96) / 사전조사만 실시 4. 한-필 친선병원 건립사업('99-'01/3,800천불) 5. 한-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03-'04/5,000천불) 6. 한-필 IT훈련원 건립사업('03-'05/5,000천불)
NGO지원	5단체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선한사람들, 한국JTS 등 총 57만불

2. KOICA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수생초청사업은 경제정책관리 및 농업관련 분야를 위주로 빈곤퇴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 인사들의 연수를 통해 필리핀 정부의 빈곤감소, 사회개발, 지역간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둔 중기개발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연수생동창회 모임인 PHILKOFA를 결성하고 활동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연수사업의 사후관리와 연수생간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봉사단파견사업은 grass root 차원의 기술전수 및 개발의식 고취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필리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농어촌개발 분야에 적극 부응하며 직접적인 농어촌 주민과의 접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측으로부터는 KOV 활동에 대한 높은 평

가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중이나, 한편으로는 단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 수요발굴 및 파견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발조사사업은 필리핀의 빈약한 천연자원 개발과 전력난 해소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바탄지역의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타당성조사에 이어 한국 전력의 발전소 건설사업 진출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으나 필리핀에서 실시한 지질조사나 광물탐사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이밖에 경제개발 계획에 맞추어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사업은 필리핀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증진,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등을 목표로

지원하였다. 1995~96년 실시된 잠업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큰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카비테 공단 인근지역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한-필친선병원의 경우, 프로젝트사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위하여 의료장비 보수 및 추가지원, 운영관리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 학생을 모집 중인 다바오시의 한-필 직업훈련원은 1년간 우리측 자문관의 지도를 받지만 동 훈련원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의 전수, 훈련원 장비의 사후관리, 수료한 기능공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사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원조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필리핀은 수원체계가 비교적 우수하고 인력이 풍부한 반면, 정치불안, 극심한 빈부격차 및 지역·종교간 갈등, 전문산업인력 부재, 천연자원 빈약 등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인하여 경제사회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현 아로요 행정부는 10년 내 빈곤극복 달성을 경제개발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①자유경쟁체제 구축 ②농업근대화 중점 ③사회정의 및 소외계층 배려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중점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경제개발 과정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보건 의료 분야, 농업 및 교육훈련 분야에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구체적인 중점지원 추진분

야로는 ①직업훈련, 기술교육, IT분야 등 필리핀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②행정능력 향상 및 기초산업 기술협력 분야 ③필리핀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순위인 농업 분야 ④필리핀 정부의 민다나오 개발정책 등 지역간 소외지역 개발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및 Good governance 지원 ⑤열악한 보건의료 및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의료시설 지원 ⑥선·후진국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IT분야 ⑦개발의욕 고취형, 주민참여형 사업전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은 국내적으로 지역간, 종교간, 빈부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나, 향후 발전잠재성 등을 감안, 필리핀 국가개발 계획의 중점추진 사안인 바, 빈곤퇴치와 지역통합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더욱 고려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 필리핀 협력방향은 양국간 통상, 투자, 인적교류 등 실질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우리의 대 아세안 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상호보완 측면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분야 지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IT 인프라구축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치외교적인 관점에서 필리핀은 한국전 참전국인 전통 우방국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탈북자와 관련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아국의 외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상경제적 관점에서는 아국의 주요 교역대상국(12위)이며 매년 20억불의 무역흑자 창출국으로서 교역량 및 아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원조실시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원조수단 투입을 통해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은행, 일본, 미국 등 필리핀의 대표적인 원조기관은 기

관특성에 맞게 국별원조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자원 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국별원조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원조목표와 수단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원조정책 대화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